

유언비어와 정치

李 孝 成

目 次

- | | |
|----------------------|-----------------|
| I. 유언비어 발생의 여건 | VI. 여론으로서의 유언비어 |
| II. 유언비어의 사회성 | VII. 유언비어의 단속 |
| III. 유언비어의 무근거성과 합리성 | VIII. 유언비어의 조장 |
| IV. 유언비어의 비공식성 | IX. 맺는말 |
| V. 보도로서의 유언비어 | |

유언비어는 일종의 보도, 설명, 신념, 의견이다. 유언비어의 특성으로 흔히 지적되는 것은 그것이 비공식적이며 그 근거가 불확실하고 대개 구두에 의해 전달됨에도 상당히 광범하게 유포되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이같은 유언비어에 대한 사람들의 관점은 대체로 두가지로 대립되어 있다. 하나는 유언비어를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병리적 현상으로 파악하여 부정적으로 보는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유언비어를 불완전한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대안으로 파악하여 긍정적으로 보는 태도이다. 전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유언비어가 비공식적이고 근거가 없으며 전달과정에서 왜곡되고 악의적으로 조작된다고 믿는다. 이에 반하여 후자의 견해를 갖는 사람들은 유언비어란 직접·간접으로 민중의 욕구와 원망을 나타내므로 여론의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더 중시한다.

후자의 입장에서 보면 유언비어는 대개 민중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민중의 언론이다. 그것은 민중들의 욕구와 원망과 세계관을 투영한다. 따라서 그것은 흔히 기존질서를 부정하고 변화를 지향하는 정치적 언론으로 작용한다. 그 때문에 유언비어는 지배세력의 혐오와 탄압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바로 그 때문에 유언비어는 심각한 분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I. 유언비어 발생의 여건

유언비어는 흔히 그 중심이 되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며 그 문제에 관하여 말한다. 그것은 문제거리가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문제거리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절박하고 중대한 관심을 갖게 되며, 그 상황에 대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어떤 상

황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을 올바르게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 상황을 바르게 설명해 주는 정확하고 새로운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러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공식적인 보도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이때 그 보도가 적절한 것이면 우리는 그것을 문제의 상황에 대처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없어진다. 그러나 만일 공식적인 보도원으로부터 적절한 정보를 구할 수 없을 때,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되고 우리는 애매함 속에서 좌절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걸가는 사람은 짙은 안개 속에서도 길을 찾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문제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뉴스를 구할 수 없을 때는 스스로 적절한 정의를 내려야 한다. 이렇게 해서 뉴스의 형태로 급조되는 것이 유언비어다. 결국 유언비어는 중대한 상황에서 일상적인 보도와 통신이 제대로 구실을 다하지 못하여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때 생겨나는 뉴스인 셈이다.¹⁾ 시부타니의 지적과 같이 “공중의 뉴우스에 대한 수요가 제도적인 채널을 통해 주어지는 공급을 초과할 때 유언비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다.”²⁾ 여기서 보도와 통신 기능의 불완전성에 관하여 주목해야 한다.

보도와 통신의 기능제약에는 물리적인 제약과 사회적인 제약의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앞의 것은 지진이나 홍수 등과 같은 자연적인 재앙 즉 천재지변에 의한 두절이고 뒤의 것은 당국의 명령이나 폭도의 파괴 등과 같은 사회적인 강제에 의한 금지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자연적인 재앙에 의한 두절 즉 물리적 제약은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 보도·교통·통신의 이기가 발달하였고 그 망이 잘 정비되어 있어 자연재앙에 의해 그 기능이 잠시 정지될 수는 있지만 유언비어가 난무할 만큼 오래동안 정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 잠시 동안은 유언비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이 회복되는 즉시 그런 유언비어는 사라져 버리고 만다. 홍성지방의 지진과 관련된 유언비어나 이리역 폭발사고와 관련된 유언비어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도 그러함을 잘 알 수 있다.

유언비어를 낳게 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요인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통신과 보도의 기능에 대한 사회적인 제약이다. 달리 바꾸어 말하면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사회적인 강제적인 것이다. 옛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적절·간접으로 언론자유에 어떤 제약을 받아오고 있다. 제약의 형태는 여러가지가 있다.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제정, 언론에 대한 공식적 검열, 비공식적 협조요청, 특정 언론에 대한 특혜, 광고 탄압, 신문용지 규제, 언론인 매수, 언론인에 대한 공갈이나 협박 또는 폭력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이 모든 형태의 언론제약을 그동안 받아왔다. 물론

1) 이 문장에서 “중대한 상황”이란 관련된 개인들에 대한 문제의 중요성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때”란 증거의 애매성을 말하는 데 알포트와 포스트만은 이 두 요인을 유언비어 유포의 기본조건으로 간주한다. Gordon Allport and Leo Postman, *The Psychology of Rumor*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47), p.33.

2) Tamots Shibutani, *Improvised News: A Sociological Study of Rumor* (Indianapolis: Bobbs-Merrill, 1966), p.164.

어느 정도의 언론자유제한은 불가피하며 필요하기도 하다. 그러나 정도문제다. 우리는 그동안 장기간에 걸쳐 너무나 지나치게 언론자유를 제한당해 온 데에 문제가 있다. 많은 중대한 사실이 아예 보도되지도 않았고 보도되더라도 불충분한 내용을 전하거나 왜곡된 내용을 전할 뿐이었다. 그래서 언론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게 되었다. 사회적·정치적 의의가 큰 사건이라도 그것이 권력자에게 불리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진상을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알 수도 없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심지어는 공식적인 뉴스로 전해지는 내용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역으로 생각하는 경향마저 생겼었다. 이런 상태에서 어쩌 유언비어가 생기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러한 현실에서 유언비어가 발생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이런 경우 유언비어는 일그러지고 비뚤어진 모습으로 출몰하는 것이 아니고 단정한 신사의 모습을 하게 되고 민중에 의해서 신사로 대접받게 된다.

이와 같이 권력자의 힘에 의하여 진상이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전달되지 못할 때 민중은 진상에 굶주림을 느끼게 된다. 허기를 느끼는 민중은 보통 때 같으면 입에 대지도 않을 형편없는 음식도 먹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먹어서는 안될 것까지도 먹게 된다. “심한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이 무엇이든 닥치는대로 먹어치우는 것처럼 고통이나 보도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인간은 환경에 관한 지식은, 가령 그것이 아무리 황당무계한 것일지라도 대뜸 꿀꺽 삼켜버린다”고 시미즈도 말했다.³⁾ 나치독일, 군국주의 일본, 스탈린 치하의 소련, 제삼세계 독재국가 등 체제도전을 불허하고 가혹한 언론탄압을 자행하는 국가에서 권력자를 조롱하거나 체제도전적인 내용을 담은 유언비어들이 번성하게 되고 공식적인 보도보다도 더 신뢰를 받게 되는 소이가 거기에 있다. 이런 까닭에 그런 사회에서는 유언비어가 권력자에게 더욱 불리한 것이 되고 따라서 더욱 가혹한 탄압의 대상이 된다. 그들은 자기에게 불리한 유언비어를 엄명으로 금지시키지만 그럴수록 더 애매한 상황을 만들어 유언비어를 더욱 만연케 한다. 그래서 유언비어의 박해된 만연은 서로의 꼬리를 물고 계속 악순환을 거듭한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유신체제와 전정권 하에서 체험했다.

유언비어 발생의 여건은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마련되는 것임을 보았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기능하더라도 주어진 상황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 유언비어가 발생한다. 특히 그 상황이 특정한 목적에서 결과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사람들이 갖게 되면 유언비어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88년 10월, 16년만의 국정감사가 한창인 때에 미결수 탈주범 7명이 경찰, 검찰, 군의 비상경계망을 뚫고 옛세췌 서울 시내 주택가 등지에 출몰하는 데도 걸려되지 않자 시중에는 “경찰이 탈주범들을 쉽게 건거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질질 끌어 국정감사로 들어난 각종비리를 덮어 두려는 것이 아니냐”는 등의 유언비어가 자연스럽게 유포되었다.⁴⁾

3) 清水幾太郎, 「流言蜚語의 社會學」, 李孝成 譯 (서울: 靑藍, 1977), p. 27.

4) 「동아일보」, 1988년 10월 13일, 휴지통란.

이제 유언비어의 특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자.

Ⅱ. 유언비어의 사회성

유언비어는 소문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우리말 사전에도 유언비어란 「도무지 근거없이 널리 퍼진 소문」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 정의에서 유언비어가 널리 퍼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문이긴 소문이지만 일반적인 소문과는 달리 광범하게 유포되는 소문——이것이 바로 유언비어인 것이다. 소문이 널리 퍼진다는 것은 그 소문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 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언비어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라는 점에서 우리는 유언비어가 사회성이 강한 소문이라는 점을 그 특성의 하나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다.

소문이라는 것은 첫째 들어서 전한다는 점, 둘째 그것을 주고 받는 장소에 그 내용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셋째 관념이나 이론에 관한 것이라기 보다는 사물이나 인물 또는 상황에 관한 미확인의 메시지라는 점을 그 특질로 하고 있다. 소문의 일종인 유언비어가 이런 특성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유언비어는 여기에 사회성이 강하다는 특성이 첨부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유언비어는 대체로 미나미의 지적과 같이 ① 사회구성원 전체에 관계있는 위기의 상황에서 생겨나고, 따라서 ② 개인이 대상은 아니고 사회적인 사건이나 문제가 대상으로 되고, 개인에 관한 사건일 경우는 사회적인 의의가 있는 것일 때이며, ③ 어떤 형태로든 사회적인 의견을——직접 또는 간접으로——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는 것이다.⁵⁾ 이런 점에서 어떤 사람들은 가십이나 스캔들 또는 속덕공론과 같은 일반적인 소문과 유언비어를 구분하기도 한다. 그러나 유언비어를 그런 것들과 엄밀하게 구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 사회적인 의의가 없거나 사회적인 의식이 강하지 못한 것을 유언비어라고 할 수는 없다. 소수의 개인적인 흥미에만 부합되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언비어의 사회성의 강도는 그 사회의 유연성과 관계있다고 말할 수 있다. 유언비어는 어느 사회에나 있지만 사회마다 유언비어의 질과 양이 다른 것은 그 때문이다. 유언비어의 사회성의 정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 국가나 독재국가에서와 같이 언론자유가 없는 경직된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유언비어가 정치적·사회적 의미를 띤 것들이며 그 수 또한 많고 또 더 신뢰를 받는다. 그러나 언론자유가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유언비어의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유언비어가 발생해도 그 사회적 의미가 약하며 대개는 개인들의 심리적 긴장을 해소키 위한 것들이다. 미국의 유언비어 학자들이 유언

5) 南博, 「體系社會心理學」(東京: 光文社, 1957), p. 470.

비에 대해 대체로 심리학적인 해석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에서 끈질기게 나돈 유언비어라는 것은 유해식품이나 뱃속에서 폭발한다는 과자에 관한 것들로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어처구니 없는 것들이다.⁶⁾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가. 1987년의 6월항쟁 이후 사정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우리는 그동안 극도의 언론자유 제한 속에서 살아왔다. 유신체제와 전정권 하에서는 긴급조치와 여러 법령 및 정치적인 압력 등으로 사회성이 큰 사건들에 관한 내용이 거의 보도되지 않거나 왜곡되었다. 그러니 우리의 유언비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공식적인 보도기관을 통해 당연히 보도되어야 할 내용, 즉 사회적 의미가 큰 것들일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이 때문에 진상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권력자가 진상의 일부를 전하게 되는 유언비어를 박해하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김대중씨 납치사건과 광주민중항쟁 등에 관한 유언비어를 비롯하여 유신체제와 전정권 하에서의 수많은 유언비어가 사회성이 두드러진 것들이었으며 상당수의 유언비어가 나중에 사실로 밝혀졌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Ⅲ. 유언비어의 무근성과 합리성

우리 사전은 유언비어가 「도무지 근거없이 널리 퍼진 소문」이라고 하여 유언비어의 무근거성을 지적하고 있다. 사전에 의하면 「流」자는 흐른다는 뜻 이외에 불확실하다는 뜻과 무근거를 나타낸다는 뜻도 있다. 또 많은 일반 사람들이 유언비어를 얘기할 때 이 무근거성을 유언비어의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지적한다. 유언비어를 문제시하거나 박해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명분도 바로 이 무근거성이다. 그렇다면 무근거성이 유언비어의 본질적인 특성인가. 그리고 모든 유언비어가 전혀 근거없는 것일까.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무근거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부터 따져보기로 하자.

우리가 유언비어는 근거없는 것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유언비어의 내용이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보통이다. 마치 있었던 것처럼 전해지는 내용이 실제로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것을 유언비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언비어라는 것은 일정한 조건과 원인 하에서 어떤 단서나 재료가 주어질 때만 생겨나는 것이므로 전혀 사실 무근인 것은 있을 수 없다. 시부타니는 허위가 유언비어의 필연적인 특성이 아니라고 강조한다.⁷⁾ 또 철두철미의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납득시키고 그들을 결합시키면서, 사회적으로 만연될 수 있는 통용력을 가진 유언비어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유언비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사실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유언비어는 사실

6) 이러한 미국의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리더스 다이제스트」 1980년 2월호 “쭈쭈쭈쭈... 유언비어의 생리”라는 글에서 그 일면을 볼 수 있다.

7) Shibutani, *Improvised News*, p.17.

과 비사실이 웃감의 씨줄과 날줄처럼 얽혀있는 것이다. 유언비어는 사자의 머리, 염소의 몸, 뱀의 꼬리를 갖춘 키메라(chimera)와 같은 괴물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어느 한 부분으로 키메라 전체를 단정할 수 없듯이 사실이나 비사실 어느 한가지만으로 유언비어 전체를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거기에는 사실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다. 양자가 무리 없이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시미즈의 지적과 같이 전혀 사실과 무관해도 유언비어가 될 자격이 없고 또한 완전히 사실과 부합해도 그것은 이미 유언비어가 아니다.⁸⁾ 결국 유언비어는 전체가 완전한 사실은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얼마간의 사실이 존재함을 보았다. 따라서 무근거성이 유언비어의 특질이 될 수 없음도 분명해졌다.

그렇다면 완전한 사실도 아니고 완전한 거짓도 아닌 것이 어떻게 사실인 것처럼 행세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합리성이라는 묘약의 작용이 있다. 유언비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적인 자원을 동원하여 주어진 재료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 토론을 거쳐 만들어내는 집단적 작품이다.⁹⁾ 더구나 그것은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행위의 지표가 된다. 따라서 그것은 그 사람들의 이해를 초월한 것이 될 수 없다. 유언비어는 그것을 주고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한 것이다. 그것이 만들어진 상황과 전혀 무관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엉터리같은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 상황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합리적인 것이다. 유언비어는 전달되어가는 과정에서 점점 더 그럴듯해진다는 사실이 유언비어에 관한 여러 연구에 의해 밝혀졌다.¹⁰⁾ 유언비어는 유포되는 과정에서 비합리적인 내용이 제거되고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변해가는 것이다.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사실과 일치한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실 자체가 일반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일 때 그에 관한 유언비어는 합리적이기는 하되 사실과는 거리가 먼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특히 집단의 흥분이 강하지 않고 뉴스에 대한 요구가 절박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언비어는 비판적인 신중성을 가지고 만들어지므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유언비어는 현실 이상의 진실미를 담고 있을 수 있다. 즉, 합리적인 상상이 가미됨으로써 사회적 현실의 움직임을 실제 이상으로 날카롭게 보여주는 것이다. 79년 12월 12일 쿠테타 얼마 후부터 퍼졌던 신당자금 2천억설, 정치권에 대한 정치권 외의 작용설, 당시 정부의 정치일정의 공약에 대한 불신설 등은 그 내용의 진위를 떠나서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그럴듯한 것이었다. 실제로 그런 내용들이 나중에 사실로 들어난 경우도 많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흔히 말해지는 무근거성은 유언비어의 특성이 될 수 없으며 그것을 대신하여 합리성을 유언비어의 특성으로 거론할 수 있는 것이다.

8) 清水幾太郎, 「流言蜚語의 社會學」, p. 41.

9) Shibutani, *Improvised News*, p. 164.

10) *Ibid.*, pp. 76-86.

Ⅳ. 유언비어의 비공식성

유언비어는 흔히 비공식적인 보도로 정의된다. 비공식적이라는 말이 붙게 된 것은 유언비어가 매스 미디어나 관료조직과 같이 제도적인 채널을 통한 것이 아니라는 까닭에서다. 그러면 제도적인 채널을 통한 공식적인 보도와 그렇지 않은 유언비어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과연 그런 인식이 옳은지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지적되어야 할 점은 제도적인 채널을 통한 공식적인 보도는 정확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매스 미디어는 제도적인 보도원으로서 확립되어 있어서 신문이나 방송 또는 텔레비전 등을 통해 보도되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사실로서 받아들여진다. 사람들은 언론사들이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집·가공·배포할 수 있는 훌륭한 장비와 인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며 특히 언론인의 양식과 전문성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론사는 공신력을 갖게 되고 그 공신력이 있음으로 해서 신문·라디오·텔레비전 등을 통한 뉴스는 정확한 것으로 믿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런 제도적인 채널을 통한 공식적인 뉴스라고 모두가 정확한 것은 아니다. 정확한 내용을 제시하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도 객관성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통신사를 통해 들어오는 수많은 자료 중에서 행하는 선택, 의심스런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의 부족, 잘 갖추어진 얘기를 제시하려는 유혹 등으로 객관성이 유지되지 못한다. 더구나 보도에 의도적인 왜곡이 행해지기도 한다. 어떤 사항은 돋보이게 하고 어떤 사항은 제외해버리는 등 부당한 취사선택을 행하여 바람직한 인상을 만들어 내려는 노력이 있는 것이다. 게다가 어떤 보도는 철저히 위조된 경우도 있다. 물론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가끔 있는 것이다. 이런 점들 때문에 우리는 언론자유가 충분히 주어지는 상황에서도 공식적인 보도가 사실을 사실대로 전한다고 믿는 것은 위험한 일임을 할 수 있다.

공식적인 보도를 더욱 신뢰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정치권력이 언론기관에 작용하여 부당한 간섭을 행할 때다. 언론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사회에서 공식적인 보도가 신뢰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경험했듯이 권력자는 자기들에게 불리한 사실은 그 보도를 아예 허용치 않거나 자기에게 유리하게끔 왜곡시키거나 또는 사건을 조작하여 없는 사실을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게 하기도 한다. 이럴 경우 공식적인 보도는 사실에 반하는 것이 되곤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론기관을 불신하고 유언비어에 의해 진실을 주고 받는다. 부마항쟁과 광주항쟁 때 언론기관이 군중들의 일차적인 공격대상이었다는 점은 무엇을 말해 주는 것일까.

우리는 앞에서 공식적인 보도가 반드시 사실만은 아니며 언론자유가 제한되어 있을 때는 권력자에게 불리한 진실은 오히려 유언비어를 통해서 전해진다는 점을 살펴 보았다. 이제

비공식적이라는 말에 의해 의미되는 또 다른 측면에 주목해 보자.

공식적인 보도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것이 문자에 의해 고착된 것이라는 점이다. 이 점 때문에 공식적인 보도가 더 믿을만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보도 즉 유언비어는 문자에 의해 고착된 형태가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유동적인 형태로 전달된다. 이러한 구전이라는 유언비어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유언비어의 또다른 특성을 낳는다. 첫째 구전이기에 때문에 문자에 고착된 공식적인 보도와는 달리 전달되어 가는 과정에서 보다 자유롭게 그 형태를 바꿀 수 있다는 점, 둘째 개인에게서 개인에게로 사적인 채널을 통해 전해지므로 그 비밀이 보장되고, 따라서 세계 내용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이 없다는 점이다.

먼저 구전의 유동성에 대해 생각해 보자. 문자로 고착된 공식적인 보도는 고체에, 구전에 의한 비공식적인 보도 즉 유언비어는 액체에 비유할 수 있다. 고체는 쉽게 변형되지 않는다. 그러나 액체는 쉽게 그 형태를 바꾼다. 유언비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질되는 것은 이와 같은 이치 때문이다. 유언비어의 전달에 참여한 사람들의 심리상태·경험·지식·비판능력·기억력 등의 영향을 받아서 원래의 모습이 완전히 그대로 남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변한다고 해도 멋대로 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더 그럴듯하게, 더 합리적으로 바뀐다. 유언비어를 주고 받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나 문화 또는 전유경향에 맞는 방향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이 그 형태를 아무리 바꾸어도 물의 본질은 남듯이, 유언비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 모습이 달라진다해도 중요하지만 애매한 상황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유언비어의 본질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아니 내용의 변화 그 자체가 그러한 유언비어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유언비어 형성과정의 이러한 유동성은 유언비어가 민중들의 일련의 민주적인 참여로 형성된다는 것을 뜻한다. 공식적인 보도는 대개 엘리트에 의해 형성되어 일반민중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반면 유언비어는 참여자 사이에 자유로운 의견교환에 의해 형성된다. 따라서 코헨과 영의 지적처럼 공식적인 보도는 구조화되어 대안적인 해석의 기회를 막지만 유언비어는 구조화되지 않아 대안적인 해석의 기회를 제공하여 그 내용이 개혁적이고 급진적일 수 있다.¹¹⁾

다음으로 구전이라는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한다는 점에서 비롯되는 유언비어 전달에 있어서의 비밀성에 대해 살펴보자. 유언비어를 배태하는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가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언비어는 개인들의 사적인 회로를 따라 친숙하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전달되는 것이 보통이다. 권력자에게 불리하여, 박해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것은 특히 더 그러하다. 그래서 유언비어는 비밀스럽게 전달될 수 있다.

11) Stanley Cohen and Jock Young(eds.), *The Manufacture of News*, rev. ed. (London: Constable, 1981), p.429.

전달에 있어서 이러한 비밀성 때문에 박해받을 수 있는 내용, 금지된 내용도 전달될 수 있으며 그것이 금지되고 박해받기 때문에 더욱 비밀성이 요구되기도 한다.

유언비어가 구전에 의하여 비공식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그 내용에 대해 크게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점이 유언비어의 또 하나의 특성이다.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증대한 내용도 가벼운 마음으로 쉽게 주고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유언비어를 말할 때 사람들은 대개 습관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서를 붙인다. 즉, “듣자니...”, “아무개가 그러는데.....”, “신문(또는 일설)에 의하면.....”, “튀라카더라.....”, “사실 인지는 모르지만.....” 등등 이러한 단서는 자기가 말하려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거나 자기 자신은 그 내용을 믿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유언비어를 주고 받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이 묵시적으로 동의되어 있는 것이다. 금지되어 있는 내용, 박해받을 수 있는 내용은 특히 이러한 단서가 붙는다. “카더라방송”이라는 신조어의 “카더라”는 이러한 단서의 경상도 방언 “튀라카더라.....”에서 따온 말이다.

유언비어의 몇가지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이 밖에도 유언비어가 갖는 특질들을 더 지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다 언급되었으므로 부차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기로 한다. 이제 이런 특성들을 갖는 유언비어가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V. 보도로서의 유언비어

유언비어 흔히 비공식적인 보도로 정의된다. 보도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공식적인 보도가 없거나 믿을 수 없을 때 생겨난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언비어는 분명히 보도로서 기능한다. 시부타니는 유언비어를 본질적으로 보도의 한 형태로 간주한다.¹²⁾ 광주 항쟁 당시의 많은 유언비어들이 이런 상황에서 생겨난 보도였다. 공식적인 보도가 없거나 부족할 때는 그 공백을 메워주는 어떤 것이, 공식적인 보도가 앞뒤가 맞지 않을 때는 앞뒤가 맞는 어떤 것이, 공식적인 보도를 믿을 수 없을 때는 믿을 만한 어떤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그 어떤 것이 바로 유언비어다. 그렇다면 공식적인 보도와 비공식적인 보도 즉 유언비어와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 이 점에 대해 말하기 전에 우선 보도가 무엇인가부터 생각해 보기로 하자.

결정론을 굳이 내세우지 않더라도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적응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인간이 환경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인간

12) Shibutani, *Improvised News*, p.17.

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물이 다 마찬가지다. 모든 생명체는 살아가기 위해서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정보— 이것이 바로 보도다. 그런데 환경변화라는 것이 우리의 오관으로 쉽게 파악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다. 더구나 오늘날과 같이 환경이 넓어지고 복잡해졌으며 그 변화가 급속한 상태에서는 더욱 그렇다. 특히 인위적인 환경이 그러하다. 여기서 인간은 자신의 오관을 연장시킬 절실한 필요를 느끼게 된다. 그 연장이 바로 매스 미디어다. 매스 미디어는 우리가 직접 보고 들을 수 없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알려준다. 중요한 환경변화에 대한 정보를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점이 현대사회의 특징이기도 하다. 우리가 보도를 말할 때 흔히 매스 미디어를 연상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도라고 할 때는 매스 미디어와 같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뉴스를 말하는 것이 된다.

보도란 인간이 환경의 변화에 적응키 위해 필요한 정보라는 점을 말했거니와, 인간이 살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보도의 생명은 그 진실성에 있게 된다. 보도가 진실하지 못할 때 우리는 환경에 제대로 적응할 수 없게 되며 그렇게 되면 우리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기 때문이다. 사실을 사실대로 전할 때에만 보도의 존재의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보도라는 말을 들을 때 그것은 진실을 전하는 것으로 믿는다. 더구나 현대사회에서는 대부분의 보도가 매스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지적했는데 그러한 특징 때문에 보도가 더욱 진실된 것으로 간주된다. 매스 미디어 자체가 갖는 공신력이 그것에 실리는 보도의 신뢰성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보도는 환경변화에 대한 정보이며 그것은 진실성을 그 생명으로 한다는 점과, 오늘날의 보도는 대체로 매스 미디어와 같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전해지며 그 때문에 진실된 것으로 믿어진다는 것을 말했다. 그러면 이러한 일반적인 보도와 유언비어와의 차이는 무엇일까. 행인지 불행인지는 몰라도 보도와 유언비어가 그 본질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 물론 피상적인 면에서 이 양자 간에는 여러가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보도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공개적으로 발표되는데 반하여 유언비어는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은밀히 전해진다는 점, 둘째 보도는 문자로 기록되어 고착되는데 반하여 유언비어는 유동적인 형태로 구전되며 고착되지 않고 전달 중에 변화한다는 점, 보도는 발표의 주체가 확실하고 따라서 그 내용이 허위일 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유언비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점, 따라서 네째 보도는 일반적으로 진실일 것이라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는 반면 유언비어는 대개 반신반의에 기초한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라는 점에서 보도와 유언비어는 같은 것이며 따라서 그 생명이 진실성에 있다는 점 또한 같다. 진실성이 그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진실하지 않다는 점마저도 같다. 다만 보도는 사실일거라는 믿음의 보호를 받는 반면 유언비어는 그런 믿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는 점이 양자의 중요한 차이이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이 보도의 진실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앞서 유언비어의 비공식성을 살펴볼 때 공식적인 보도가 반드시 사실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한 바 있으며 또 실제로 우리가 체험한 바이기도 하다. 또 유언비어에는 그런 믿음이 없어도 때로 사실 이상의 진실을 전한다는 점도 유언비어의 합리성을 논할 때 살펴보았다. 유언비어 그 자체는 사실에 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합리성 때문에 사실을 숨기려하는 자들에게 타격을 가하고 사실을 밝히도록 하는 효과를 낳기도 한다. 예를들면 88년 9월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정부와 민정당은 일해재단의 익명기부금 15억원의 출처에 대해 쉬쉬 털어두다가 “그 돈은 노대통령이 냈다”는 유언비어가 번지자 부랴부랴 그 돈의 주인이 전두환 전대통령임을 넌지시 언론에 공개했다.¹³⁾

이런 점들과 관련하여 통제사회에서 유언비어가 보다 많고 보다 신뢰받는다는 사실은 좋은 증거가 된다. 언론자유가 통제된 사회일수록 유언비어가 창궐하며 독재정부는 유언비에 끌머리를 얹는다. 더구나 그런 사회에서는 보다 지적인 사람들이 유언비어를 신용할 만한 보도로서 받아들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미국에서의 연구에 의하면 소련 피난민을 면접한 결과 각 계급의 대다수가 유언비어를 신문보다 더 믿으며 농민들은 56%, 도시 지식계급은 95%가 신문보다 유언비어를 더 신뢰할 만한 것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¹⁴⁾ 소련 피난민을 면접한 또 다른 조사결과에 의하면 보도매체로서 지식계급은 30%, 농민들은 8.5%가 유언비어를 들고 있으며 유언비어에 의해 정보를 얻는다고 말한 사람들에게만 신문과 유언비어 중 어떤 것을 더 믿느냐고 물은 결과 지식계급은 90%, 농민은 57%가 유언비어를 더 믿는다고 대답했다는 것이다.¹⁵⁾ 이 결과는 유언비어가 공식적인 보도 보다도 더 신뢰받는 보도로서 작용하는 사회가 있음을 보여 준다. 유신체제와 전정권 하의 우리 사회에서 이런 조사를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VI. 여론으로서의 유언비어

여론이란 공중 즉 사회성원이 관심을 가진 문제에 대한 집단적인 의견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개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바를 나타내므로 어떤 형태로든 사회적인 의견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유언비어도 여론의 일종으로 파악할 수 있다. 유언비어에 해당하는 라틴어의 fama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나 판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유언비어는 한편으로는 사건에 대한 보도이면서 한편으로는 그에 대한 의견이기도 하다. 그래서 시미

13) 「중앙일보」, 1988년 9월 14일, 중앙탐란.

14) R. Bauer and D. Gleicher, “Word-of-Mouth Communication in the Soviet Union,” *Public Opinion Quarterly*, 17(1973), 307.

15) A. Inkeles and R. Bauer “Keep up with the News,” in B. Berelson and M. Janowitz (eds.) *Reader in Public Opinion and Communication* (New York: The Free Press, 1966), pp. 566, 577.

즈는 유언비어를 잠재적인 여론으로 파악했고¹⁶⁾ 파우얼은 유언비어의 내용과 강도는 여론의 지수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¹⁷⁾

그렇다면 여론이 여론으로서 몇몇이 발표되지 못하고 보도의 형태를 취한 채 음지에서만 사는 유언비어로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론은 흔히 하나 이상의 새로운 요구를 포함한다. 그 요구는 모든 사람의 요구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사회에는 이해관계가 상반된 여러 집단이 있게 마련이다. 한 집단의 이익은 다른 집단의 이익에 반하게 된다. 여론이란 한 집단의 이익을 요구하는 것이며 그 요구의 실현은 곧 지금까지 그 이익을 누려온 집단의 손해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사회적인 관심의 문제를 두고 이해가 상반되는 집단 간에 서로 다른 여론을 형성하고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만일 갈등을 일으킨 집단들이 서로의 견해를 충분히 발표하고 타협과 양보하는 합리적 방법으로 그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 당연히 그 갈등은 해소되고 만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집단 간에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그렇게 합리적으로만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힘이 센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에 불이익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수가 많다. 더구나 불이익을 일방적으로 강요받는 집단이 다수집단인 경우는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극소수의 권력자들이 민중의 이익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보호하려고 들 때 그 사회는 불만으로 가득차게 된다. 더구나 기득권을 가진 소수집단은 그들의 힘을 이용하여 그들의 이익에 반하는 의견의 발표를 막는다. 따라서 다수의 약자들의 의견은 여론으로서 현재화(顯在化)되지 못하고 지하로 숨어들어 잠재적인 여론으로 되고 만다. 이것이 바로 여론으로서의 유언비어의 모습이다. 바로 몇몇이 행세하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여론인 것만은 분명하다. 예를 들어보자. 1980년 계엄사령부는 광주항쟁을 무참히 짓밟고 그에 관한 진상을 은폐하던 중 6월 9일 8명의 현직언론인들을 “악성적 유언비어를 유포시켜 국토통일과 국가적 단합을 저해하고 있는 혐의”로 연행, 조사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때 계엄사가 이들 언론인들이 유포시킨 유언비어로 공표한 것들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학생 데모는 민족의 역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려는 인민해방운동이다.” “광주사태는 권력에 짓눌려온 민중의 의거이며 민중의 의거가 전국에 확산된다면 궁극적으로 통일이 될 수 있다.”¹⁸⁾ 이들 유언비어는 당시 지배권력의 이해에 상반했기 때문에 탄압을 받았지만 분명 하나의 강력한 여론이었다.

그런데 여론은 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여론집단을 행동으로 이끄는 수가 많다. 그 요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욱 그렇다. 소수의 권력자에 의해 민중의 정당한 요구가 계속 억압될 때 민중들 사이에는 권력자를 적대시하고 폭동을 선동하는 유언비어가 나돌게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폭동, 집단항의, 개혁운동이나 혁명운동과 같은 집합행동이 있을 때는

16) 清水幾太郎, 「流言蜚語의 社會學」, 제 2 부.

17) N. Powell, *Anatomy of Public Opinion* (New York: Prentice Hall, 1951), p. 437.

18) 「동아일보」, 1980년 6월 9일.

반드시 그 집합행동과 관련된 유언비어가 있게 마련이다. 알포트와 포스트만도 지적했듯이 유언비어가 폭동의 유일한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유언비어는 항상 중요한 보조적인 역할을 하며 폭력을 선동하고, 수반하고, 강화하는 유언비어가 없이는 어떠한 폭동도 일어나지 않는다.¹⁹⁾ 이런 이유로 해서 잠재적인 여론으로서의 유언비어가 기존질서의 안정을 바라는 권력자의 혐오와 박해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유언비어에 담긴 새로운 사회질서의 수립을 바라는 요구가 구질서를 지키려는 집단에 의해 무시될 때 민중은 그 유언비어에 의해 조직되고 무력적인 행동으로 동원되어 집합행동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런 집합행동이 성공하면 그 사회에는 새로운 질서가 형성된다. 즉 새로운 규범이나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되어 그 사회의 문화가 바뀌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잠재적인 여론으로서의 유언비어는 새로운 문화를 낳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새로운 질서와 문화의 형성자로서의 유언비어의 또 다른 면모를 보게 된다. 유언비어라는 말에서 스틸과 생동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잠재적인 여론으로서의 유언비어가 요구를 내포한 현재적인 여론과 같은 형태를 취하지 못하고 단순한 사실의 보고와 같은 보도의 형태를 취하는 이유도 자유로운 의견발표가 금지되어 있고 또 그런 행위가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구가 포함된 주장하는 형태를 피하고 대신 그 요구가 실현되었을 때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형식을 취한다.²⁰⁾ 그렇게 함으로써 주관적인 의견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전하는 것같이 되어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법적인 형태 때문에 주장이 약화되긴 하지만 그 대신 안전할 수가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자유로운 의견발표가 허용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발표가 금지된 내용은 형식적인 전달망을 통하지 못하고 비공식적인 회로를 통해 잠재적인 여론이 되는데 이것이 권력자들에 의해 유언비어로 낙인찍혀 가혹한 탄압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와는 반대로 유언비어가 사회적 의견을 나타낸다는 점이 위정자들이나 선전가들에 의해 역이용되어 여론조작의 수단이나 선전의 수단으로 쓰인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선거 운동기간이나 전시에 선전으로 사용되는 많은 날조된 유언비어는 모두 이런 예에 속한다. 권력가는 자기에게 불리한 유언비어는 탄압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유언비어를 조작하여 퍼뜨리는 것이다. 전두환의 장기집권 시나리오인 「88년 평화적 정권교체 준비연구」는 전두환의 리더십 강화를 위한 홍보대책의 하나로 “대통령각하의 훌륭한 인품을 알리는 에피소드를 수시로 적극 개발, 구절이나 가십기사로 은근히 퍼지게 한다”는 구절을 담고 있다.²¹⁾ 이것이 야말로 권력가가 자기들에게 유리한 유언비어를 조작하여 퍼뜨린다는 구체적인 증거이다.

19) Allport and Postman, *The Psychology of Rumor*, p.223.

20) 青水幾太郎, 「流言蜚語의 社會學」, p.130.

21) 「한겨레신문」, 1988년 11월 13일.

유언비어의 사회적 역할 두가지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이 밖에 유언비어에는 표현적 기능도 있지만 이것도 심리학적 차원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이제 유언비어의 이 양대기능에서 파생되는, 유언비어의 정치와의 관련성을 고찰해 보기로 하자. 유언비어는 정치와 관련하여 상반되는 두가지 유형이 있다. 권력자에게 박해를 받는 유언비어가 있는가 하면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이용당하는 유언비어도 있다.

VII. 유언비어의 단속

유언비어가 단순히 언어적 차원에만 머물러 있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유언비어가 문제시되는 것은 사람들을 행동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이다. 유언비어는 기존의 사회질서의 개편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을 유발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질서 하에서 혜택을 누리온 지배세력은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탄압할 것은 뻔한 일이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유언비어를 단속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유언비어가 어떤 방법으로 단속되며 그 효과는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²²⁾

첫째 유언비어에 대한 대책으로서 가장 흔히, 가장 손쉽게 사용되는 방법은 그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다. 유언비어의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의문점이 있을 때, 신뢰받는 기관이나 사람이 그 내용을 부정하면 효과가 있다. 그러나 대개 유언비어의 부정은 효과가 없다. 부정은 비난과 혼동되기 쉬운데 비난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 적고 비난을 믿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유언비어라는 것은 그럴듯하기 때문에 전파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공식적인 보도기관이나 당국이 신뢰받지 못할 때 부정은 공식적인 채널을 더 의심받게 하고 유언비어의 그럴듯한 면을 돋보이게 할 뿐이다. 광주항쟁과 관련된 유언비어가 전정권의 계속적인 부정에도 불구하고 그 신뢰성을 조금도 상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점을 증명한다.

둘째 지배자에게 불리한 여론의 형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 보도의 검열이다. 그러나 검열은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길게는 역효과만 가져 올 뿐이다. 검열이 행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국이 무엇인가를 숨기려 한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 숨기려 한다는 의심은 사실 그 자체보다 더 위험할 수가 있다. 게다가 검열의 의심이 있게 되면 사회적 보도원이 불신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모든 사실이 발표되어도 유언비어가 발생하게 된다. 공식적인 채널을 불신하게 되면 유언비어를 부정하는 당국의 발표를 믿지 않게 되어 유언비어가 난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여러가지 방식으로 보도가

22) 여기서 제시되는 여러가지 단속방법에 대해서는 Shibutani, *Improvised News*, pp.200-208을 주로 참조했음.

검열을 받던 유신체제와 전경권 하에서 유언비어가 난무했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세계 유언비어의 날조나 유포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기도 한다. 특히 전시에는 국민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내용이나 군작전과 관계되는 내용을 퍼뜨리는 사람을 엄벌에 처한다는 포고령이 으레 선포된다. 우리는 계엄이나 긴급조치가 선포될 때마다 그 제일성이 유언비어의 날조와 유포를 금지한다는 것임을 보아 왔다. 국회에서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경범죄처벌법에는 유언비어 유포죄의 조항이 들어 있다. 중상모략이나 위증을 처벌하는 법은 예부터 있어온 것이지만 그것을 집행하기는 어려운 것이며 유언비어의 법적인 규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유언비어를 신고하면 포상한다는 유인책이 그것을 증명한다.²³⁾ 유언비어를 규제한다는 법규는 위정자에게 불리한 여론을 탄압하는데 이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긴급조치 9호가 그 전형이었다.

네째 건전한 양식을 가진 사람들은 유언비에 대한 대책으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진상의 발표를 권장한다. 그러나 이 방법이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유언비어가 발생하기 전에 사용돼야 하고 정부가 신뢰를 받아야 한다. 아무리 정확한 정보라 하더라도 유언비어가 발생하고 난 뒤 전해지면 도리어 새로운 의혹의 씨앗이 될 우려가 있고 또 사람들은 유언비에 의해 정보에의 갈증을 해소해 버렸기 때문에 진상의 발표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 또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리 사전에 진상을 발표해도 사람들이 발표대로 믿지 않는다. 김대중씨 납치사건, 10.26사태, 12.12사태, 그리고 광주항쟁의 진상발표 때 우리는 이 점을 체험한 바 있다.

다섯째 적이 효과적인 선전조직과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그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하는 역선전은 유언비어 통제에 효과있는 방법이다. 이런 방법은 특히 전시에 많이 이용된다. 자국에 불리한 모든 유언비어는 적국의 파괴공작으로 몰아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불리한 뉴스는 적국의 간교한 선전이라는 의심을 국민에게 심어주어 그런 위험한 정보와 국민 사이에 심리적인 장벽을 쌓는 것이다. 이 역선전은 정당과 같이 경쟁하는 집단 간에도 흔히 사용되는 수법이기도 하다. 또한 권력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유언비어를 자기의 반대 세력이 조작한 것이라고 둘러붙이는 경우도 허다하다. 유언비어의 대처방법으로서 이러한 역선전은 흑색선전과 결부되어 유언비어를 의도적으로 선전에 이용함으로써 유언비어를 대단히 위험한 선전수단으로 만들어 버린다.

지금까지 유언비에 대한 몇가지 단속방법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런 방법들이 특수한 경우를 예외로 하면 별 효과가 없다는 점이다. 중요한 점은 그런 단속방법이 아니라 공식적인 채널을 신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일이다. 그러나

23) 1980년 6월 23일 서울시경은 택시나 버스의 운전사에게 악성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자를 신고해 줄 것을 당부, 내용에 따라 포상한다고 발표했다. 그 포상의 내용은 당시 6년 이상 무사고 운전사에 주는 모범운전자 자격증을 3년으로 단축해 주며 포상을 한다는 것이었다. 「조선일보」, 1980년 6월 24일.

공식적인 채널이 믿을 만하다고 선전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은 아니다. 믿을 만하다는 증거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 밖에 없다. 물론 사실 보도가 난처한 경우도 있고 적에게 이로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라도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백번 잘 하다가도 한번 잘못하면 그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며 이 신뢰상실이야말로 권력자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바다. 몇번 불유쾌한 사실을 발표하는 것이 믿을 수 없다는 악명보다는 덜 해롭기 때문이다. 문제는 불리한 사실을 어떻게 은폐하느냐가 아니라 국민대중에게 어떻게 믿을만한 정보를 제공하느냐라는 점이다.

VIII. 유언비어의 조장

현대의 민주정치를 여론의 정치라고 일컫는다. 현대의 정치는 여론을 그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정치가들은 여론에 세심한 배려를 한다. 그런데 그것이 민중들의 바라는 바가 표출된 여론이라면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오늘날의 많은 여론이 민중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지배자의 목적에 맞도록 조작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 조작된 여론을 바탕으로 지배자는 자기의 지배행위와 정책을 합리화한다. 권력자는 민중이 사건을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여론을 조작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첫째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조작이다. 흔히 사용되는 내용조작수법으로는 사실의 왜곡, 반대자에게 유리한 사항의 검열, 민중의 선념이나 가치관의 악용, 난처한 쟁점에서 민중의 주의를 돌리려는 목적으로 속죄양을 향해 적대감을 일으키는 일이나 타이밍을 고려한 사건발표 등이다. 이러한 수법은 경쟁적인 채널이 없고 매스 미디어가 신뢰받을 때 효과가 크다. 그러나 권력자가 단순히 내용의 조작으로만 만족치 않고 사건을 조작함으로써 사람들이 행동하는 상황을 바꾸어 그들의 견해를 바꾸려고도 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금일봉 전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무고한 사람의 처형, 감시자가 어디에나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공개재판과 처형, 자기의 정책을 지지하는 관제 집단시위, 국내문제로부터 국민의 주의를 돌리기 위한 전쟁도발이나 암살음모 등이 그 수법이다.

이런 조작의 하나로서 유언비어가 제조되며 날조된 유언비어는 위의 여러 조작들을 돕기도 한다. 유언비어가 갖는 익명성이 그런 경우에 유용하게 이용된다. 특히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선전하려 할 때는 의심받지 않는 채널이 필요한데 흑색선전에 이용되는 유언비어가 바로 그런 목적에 부합한다. 백색선전은 광고에서와 같이 정보원이 밝혀진 것을 말하나, 흑색선전은 정보원이 숨겨져 있거나 위장되어 있어 그 선전의 표적집단이 그 정보가 자기 집단에서 나온 것으로 믿게 하는 그런 것을 말한다. 유언비어가 가장 위험한 선전수단이 될

수 있는 까닭은 그 정보원을 추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언비어의 조작은 언제나 정치의 일부로 행해져 왔다. 밀약, 국민동원, 군대집결에 관한 유언비어는 국제정치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해 왔다. 과열된 선거운동에서 요인이 유언비어 때문에 암살되기도 한다. 중요선거 때마다 여러 후보자들에 관한 사악한 유언비어가 난무한다. 87년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씨와 김영삼씨에 관한 여러 사악한 유언비어도 이런 예에 속한다. 자본주의국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어 유언비어로 시장가격을 조작하는 일이 흔히 있다. 주식시장에 난무하는 유언비어는 이런 류의 것이 대부분이다. 또 경쟁회사가 상대방회사나 그 제품에 관한 험담을 유언비어로 퍼뜨리기도 한다.

조작된 유언비어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러나 유언비어의 날조유포가 반드시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할 수는 없다. 유언비어의 조장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그 화제에 대한 뉴스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표적집단의 신뢰를 받는 정보원에서 나온 것이어야 하며, 그 내용이 그럴듯하고 그 집단의 지배적인 무드와 일치해야 한다.²⁴⁾ 이런 점을 감안하면 선전가의 성공은 우연적인 경우가 많다. 유언비어 전략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한다.

유언비어 전략의 제 1 단계는 이용할 채널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수립하는 일이다. 채널에 대한 공신력과 함께, 표적집단이 갖고 있는 관심과 신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람은 그들의 관심사에 선택적으로 노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메시지의 단순한 제시는 별 효과가 없다. 더구나 그 메시지가 아무리 정확한 것이라 할지라도 표적집단의 가치관과 일치하지 않으면 귀머거리에게 말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메시지의 내용조작은 특별한 기교를 요한다. 그것은 합리적이고도 수용자의 무드를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과장과 허위는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다. 허위는 부적합한 행위를 통해 드러나고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메시지 뿐만 아니라 채널까지 거부당하게 된다.

유언비어만의 조작보다는 사건의 조작이 보다 성공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여기서도 유언비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건이 연출되면 그 상황에 관한 정의가 자연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정의는 자연적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이식될 수도 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인 것은 그것이 선전으로 의심받지 않기 때문이다. 단순한 보고는 그 보고를 전하는 사람의 의도가 의심받기 때문에 보고 자체도 의심받는다. 그러나 사건이 조작되면 그것이 목격자에 의해서 또는 그 성실성이나 동기를 의심받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 보고된다. 그래서 정보원의 공신력이 의심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보고가 정확한 것이므로 대조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사건 조작의 성공적인 역사적인 예로서 1649년 크

24) Shibutani, *Improvised News*, p.199.

롬웰의 아일랜드 정복을 위한 잔학한 학살행위를 들 수 있다.²⁵⁾ 그는 저항없이 아일랜드를 정복하기 위해 그를 반대하려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한 후 2개읍에서 대학살을 감행했다. 이 학살에서 약 4천여명을 죽였지만 일부러 상당수가 도망가도록 했다. 그런데 그 도망간 사람들이 아일랜드의 각지로 흩어져 죽은 사람의 수와 그 학살의 잔학상을 전해 저항하려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결국 크롬웰은 큰 저항없이 아일랜드를 정복했다. 우리의 광주항쟁 때 계엄군의 잔학성을 군부의 권력장악을 위한 시나리오의 일환으로 보는 해석도 있다. 즉 그 당시 군부는 자신들의 명분없는 권력장악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을 막기 위해 일부러 광주를 선택하여 잔학상을 연출함으로써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몇가지 실증이 제시되기도 했다.²⁶⁾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사건조작이라 하더라도 모두를 속일 수는 없는 것이다. 어느 한 사람만이라도 그 사건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채면 그 내용이 유언비어로서 즉각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만다. 더구나 사건조작이 자주 행해지면 조작되지 않은 사건마저도 조작된 사건이 아닌가 의심을 받게 된다. 권력자는 사건조작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급급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의 신망을 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자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다.

XI. 맺 는 말

지금까지 유언비어의 여러 면모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유언비어는 어떤 여건에서 발생하는가, 유언비어의 특질은 무엇인가, 유언비어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 유언비어는 왜 그리고 어떻게 단속되고 조장되는가. 이런 점들을 우리의 사회현실에 비추어 설명하려고 했다. 이제 결론을 내릴 차례다.

유언비어는 비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것을 낳는 것은 우리 사회이며 우리 자신이다. 따라서 비정상성 때문에 비난을 받아야 한다면 그 비난은 유언비어에 계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향해야 한다.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 형태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굳이 비정상적인 형태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되는 우리 사회현실이 그리고 그런 사회현실을 조장한 우리 자신이 문제인 것이다. 메스를 대야할 것은 유언비어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며 우리 자신이다.

유언비어는 일그러지고 비뚤어진 불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불구자도 인간은 인간이다. 아니 도대체 완전한 인간이 존재하거나 하는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불구이기 때문에 더 따뜻한 애정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정상인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고귀한

25) *Ibd.*, p. 198.

26) 「한겨레신문」, 1988년 5월 17일 및 18일, 특집 “광주항쟁-비극속의 역사성”을 참조할 것.

인간성을 때로 불구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유언비어가 단순히 경멸이나 단속의 대상이기 이전에 경청의 대상이어야 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일반민중과 지배집단의 이해관계는 같지 않기 때문에 민중은 지배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식보도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공식보도와 다른 이해관계를 갖는 유언비어의 출현은 필연적이다. 결국 유언비어는 지배집단의 공식보도에 대항하는 민중의 자구적 보도다. 또 설령 민중의 이익과 지배집단의 이익이 같다 하더라도 공식보도가 언제나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언비어가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다.

유언비어 중에는 악의적으로 조작된 것들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유언비어는 중요하지만 불확실한 상황을 보다 잘 이해하려는 노력의 소산이며 거기에는 생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언론으로서 보호되지 않으면 안된다.